

# '빛으로 물든 금마저'... 서동축제 오늘 개막

### 서동공원에서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개막 행사... 4일동안 진행 서동 선발대회 등 행사 다채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이 주관하는 '익산서동축제 2019'가 3일 금마 서동공원에서 축제의 성공개최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동안 빛으로 물든 금마저를 주제로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장에서 서정적인 사람이 빛으로 물들고 병사들이 지키던 백제의 궁이 빛 속에 재현된다.



참여하며 '익산서동축제'가 서동(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인 '서동요'를 바탕으로 한 역사 인물 축제임을 알린다. 이어서 무왕무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시의회 의장,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과 윤병길 시의회의장, 경주-익산 시민교류단, 각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공물단의 식전공연과 취타대를 선두로 백제 군사들의 입장, 익산으로의 천도를 알리는 무왕의 어명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뜨거운 왕위 쟁탈전이 될 서동선발대회는 밤 7시 서동무대에서 열리며 '남자 중의 남자인 호걸'이었던 무왕의 후예들이 선화의 마음을 얻고 왕관을 물려받기 위해 왔다. 다양한 재능을 펼치 선화와 관객들

의 마음을 훔친다. 서동선발대회에서 서동상과 상충상, 계백장군상, 특별상이 선발되며, 최고상인 서동상 수상자는 '익산서동축제 2019' 주인공으로 경주에서 선발된 선화공주와 함께 남은 축제가 이루어지는 2박 3일 동안 축제장에서 관광 객들과 마주한다.

한편 익산시는 4일 간의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익산역, 터미널, 원광대 동문주차장에서 출발해 축제장까지 가는 3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내부 순환버스는 마루사지 주차장과 금마공용버스터미널에서 서동 축제장까지 수시로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 날은 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마지막 무대까지 즐길 관람객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질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가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결실'

평생교육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군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수강생들이 동네문화카페에서 배운 재능을 통해 음악회를 갖거나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페 '하모니카'는 우쿨렐레 강사와 수강생이 지난 24일 군산 시니어 인문학팀과 공동으로 작은 음악회개최로 카페에 모인 시민과 함께 화합된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월명동에서 진행된 캘리그라피 강좌 수강생들도 예쁜 글씨로 식단표를 제작하여 구도심 인근 식당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했다.

이에 시는 10월 개최되는 군산시 평생학습박람회에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수강생작품전시와 음악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2기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현장모집을 통해 6월 3일부터 10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ll.gunsan.go.kr>) 또는 군산시 교육지원과(☎454-2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A형간염

###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미리 실시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합일읍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서동축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등 각종 행사에서 A형간염 증상,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공서와 의료기관 등에 리플렛을 배부해 안전한 식생활과 A형간염 예방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다.

올해 4월까지 국내 A형간염 신고건수의 경우 전년 동기기간에 비해 237%로 증가했으며 신고된 환자의 72.6%가 30~40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30~40대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이 황달이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진다. 접종 대상은 12~23개월의 소아,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성인으로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출생자는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지원하며, 9세 이상(2011.12.31.이전 출생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섭취를 생활화 하며 예방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민주당 군산지역위와 현안해결 공조 노력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와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해결에 함께 공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장과 주요 당직자와 김임준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이 배석한 제2차 당정협



군산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함께 공조 노력을 지속했다

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현안으로 ▲고군산발전 TF팀 구성 및 고군산 발전방안 ▲어린이용 카시트 및 장난감 대여 사업 ▲다중이용 시설 돌봄지원 사업 등 여성 및 아동분야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 ▲대야 5일장 전국화 ▲오성산과 금강하류 중심의 관광 자원화 등 관광활성화 분야와 주민숙원사업 등 기타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협의회는 국가 예산 확보 공동대응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금마 황동마을 캠프 참여자 모집

###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

### 10가구 40여명 모집

익산시 금마면 황동마을회가 서동축제 기간인 4일부터 1박 2일 간 진행될 산촌마당캠프 참가자 10가구, 4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황동마을회에서는 캠핑장소로 자연 경관이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선정하고 마을 환경 정비, 판매 농산물, 음식 재료 등을 준비하며 캠핑 손님맛이 내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또한 마을민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는 행사 프로그램 기획과 인터넷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서동축제를 관람하고 마을 주민들이 제공하는 비비큐와 황동마을의 특색 있는 조각보 만들기 체험 등을 저렴한 참가비용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도농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대상자로 읍면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금마면 황동마을회와 삼기면 죽청마을회를 선정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립도서관 인문학 강좌

익산시립도서관(관장 김병재)이 올해 인문학도서관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학·철학·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립도서관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관내 농가 대상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가 쌀 과잉공급에 따라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쌀 과잉공급 및 수급 불균형에 따른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군산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담당자, 들녘경영체 및 쌀 전업농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농민과 함께 쌀값 상승 및 타작물 재배 경험 부족, 종자 공급 및 수확 공의 수매가격 현실화 등 사업 추진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고구마, 6차산업 상품개발 본격화

익산시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고구마 품목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삼기농협 고구마사업단이 응모해 지난 4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국비 1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정현을 시장은 "지역의 대표 품목인 고구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은 현재 고구마 재배 면적이 788ha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과 종묘사 등에 공급되고 있는 종은은 전국적으로 60%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고구마 산업의 중심지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